

규범서를 중심으로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생활예절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life etiquette between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younger one based on the norm-book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길 표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an's Univ.
Prof: Lee Kil Pyo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investigation to find a more practical way of the life etiquette education for today's family style, and also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life style between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younger generation.

The questionnaire of this study were obtained by 494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living in Seoul.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by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dapted by SPSS program.

The conclusion shows that acceptance level is higher among the older generation, but the necessity of life etiquette education beyond the generation is needed urgently. Then life etiquette education must be kept continuously at home, school and society.

I. 서론

우리의 근·현대사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에 있어

급격한 변동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변동은 우리의 의식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새로운 가치구조와 규범문화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성신여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한 사회의 집단 성원이 공유하는 생활예절은 필연적으로 그 시대의 가치나 규범문화와 관련되는데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생활규범에서는 오류적 질서윤리가 지배적 규범체제로 기능했었다. 그러나 합리적 사고와 개인주의적 생활방식이 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체계가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대간 갈등이 유발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역사적 경험이 다른 세대간의 생활규범에 대한 가치의식의 차이는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켜 오늘날 가정문제, 사회문제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세대차와 사회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가치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올바른 생활예절과 규범이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사회의 규범서에 나타난 생활예절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기성세대인 어머니와 청소년인 고등학생의 생활예절에 관한 의식과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세대간 가치 차이를 극복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예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규범서에 나타난 생활예절의 내용을 고찰한다.

둘째, 조선시대 규범서에 나타난 생활예절에 대한 수용정도와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에 차이를 밝힌다.

셋째,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넷째, 바람직한 생활예절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예절에 관한 문헌고찰

전통사회에서 생활원리의 기반이 되었던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시대의 규범서를 중심으로 하여 생활예절을 식생활예절, 의생활예절, 언어예절, 몸가짐예절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식생활예절

전통사회에서 식생활에 관련된 예절은 자녀를 교

육함에 있어 매우 중시되었는데, 「여사서」 여범 통론편에는

「...어린 아이에게 예절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은 식사에서 부터 비롯하나니...」

라고 하여 식생활예절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어른과의 식사시 지켜야 할 예절을 보면, 소혜왕후가 쓴 「내훈」 모의장에

「...음식 먹음에 반드시 어른의 뒤에 하여 비로소 양보함을 가르쳐야 한다...」

고 이르고 있고, 이덕무가 쓴 「사소절」 동규 경장에서는

「...어른을 모시고 식사를 할 때 먹자 마자 수저를 내던지거나 급히 먼저 일어나지 말라...」

고 하여 음식을 먹을 때는 어른이 먼저 드신 다음 먹기 시작해야 하며, 음식을 먹은 후에는 어른이 먼저 일어나신 후 일어남으로써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식사시 지켜야 할 예절의 내용으로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입속에 든 음식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내훈」 언행장에 이르기를

「...밥을 마구 먹지 말며, 후룩거리며 급히 들이키지 말며, 찹찹거리 소리나게 먹지 말며...」

라고 하였고, 「사소절」 사전 복식에서도

「...물을 마실 때는 목구멍 속에서 꿀꺽꿀꺽 소리나게 하지 말라...밥을 앞에 놓고 기침하지 말고, 밥을 먹으면서 웃지 말고...」

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밖에 식사할 때 반찬을 뒤적거리거나 털어서 먹지 않아야 하며, 수저는 함께 들고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교훈

을 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식생활예절의 내용들은 어릴 때 부터 식사시의 올바른 자세를 몸에 익혀서 어른을 비롯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의생활예절

의생활에 관련된 전통생활규범서의 내용은 기본예절, 때와 장소, 신분에 따른 예절 등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의생활의 기본예절로

「예기」 학기에

「...예를 배울 때는 각종 의복을 입을 법을 알지 않으면 편안하게 예를 행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적은 예를 배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면 바른 학문을 즐길 수가 없다...」

라고 하여 옷을 바르게 입을 법을 아는 것은 예의 기본이며, 학문을 하는데 선행요건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한편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속옷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고 하였고, 「내훈」 언행장에서는

「장사숙의 좌우명에 이르기를 “...옷차림을 엄숙하고 바르게 하며...”」

라고 언급하였으며, 「격몽요결」 지신장에는

「...의복은 사치스러운 것을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

고 하였고, 「사소절」 사전 복식에서는

「...갓이 비록 낡았다라도 그것을 바르게 정제하려고 해야 하고, 옷이 비록 거칠더라도 그것을 모두 갖

추려 해야 한다...」

고 하여 사치함없이 옷을 단정하고 바르게 갖추어 입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때와 장소, 신분에 따라 지켜야 할 의생활예절을 보면 「소학」 내편 경신에

「...예기에 이르기를 “어린 아이는 가족 옷과 비단 옷을 입지 않으며, 신코를 꾸미지 않는다”...」

고 하였고, 「소학」 내편 경신에는

「...곡례에 이르기를 “남의 아들된 자는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관과 옷을 흰 것으로 선두르지 않는다. 아버지를 여윈 아들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은 자는 비록 상기(喪期)가 끝났어도 관과 옷을 채색으로 선두르지 않는다”...」

고 하여 부모가 생존해 있는 아들은 채색옷을 입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던 반면 아버지를 여윈 고 그 뒤를 이은 아들은 돌아가신 부모를 사모하는 뜻에서 채색선을 두르지 않음으로써 孝와 敬을 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자는 검은 양피 가죽옷과 검은 관차림으로 조상 하지 않았다」

고 하여 상사에는 흰색을 위주로 하고 길사에는 채색을 위주로 했으므로 문상 때는 공자가 검은 옷과 관차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예를 표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생활예절의 내용은 결국 사치함이 없이 단정하고 바르게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은 물론 옷의 색까지도 갖추어 입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언어예절

언어는 인간내면의 생각들이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수신에 있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四德의 하나인 婦言으로

서 매우 중요시되었다. 먼저 말을 함에 있어 저속한 말, 거친 말을 주의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껌속말을 삼가 하도록 일깨워주고 있다.

유중림이 쓴 「증보산림경제」 가정편 하 선수신에

「...야비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말, 박절하고 듣기 흉한 말은 절대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고 하였고, 「사소절」 사전 언어에는

「말을 할 때는 ...저속하고 잔인하게 해서도 안되고, 사납고 조금하게 해서도 안된다」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는 남과 귀에다 입을 대고 속삭이지 말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학」 내편 명륜에

「어른이 말을 마치지 않았으면 다른 일의 말을 꺼내서 어른의 말을 혼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규중요람」에는

「...어른의 말씀에 깃달지 말며...」

라고 하여 어른의 말씀이 끝난 후에 이야기하고, 어른의 말씀이 본인의 생각과 달라도 그 자리에서 말대답하지 않아야 함을 이르고 있다.

그리고 출입시에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자신의 출입을 알려야 한다는 가르침도 제시되어 있다.

「논어」에

「...혹시 먼 곳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곳을 알리지어다...」

라고 하였고, 「격몽요결」 사친장에도

「집을 나가거나 밖에서 돌아와서는 반드시 절한 다음 인사를 여쭙고 뵈는다」

고 이르고 있다.

이같은 언어예절의 내용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과도 바른 언어생활의 예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4) 몸가짐예절

전통사회에서는 남성, 여성, 아동 모두에게 몸가짐의 예절이 중요시되어 많은 교훈서에서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

「예기」 내칙에

「부모와 시부모가 방에 계실 때 시키실 일이 있어 부르실 때는 그것을 따를 것을 삼가 답하고, 행동거지를 신중히 한다」

「격몽요결」 지신장에서는 이르기를

「마땅히 자기 몸을 바르게 해서 속과 겉이 한결같은 어두운 곳에 처해서도 밝은 곳에 있는 것 같고, 혼자 있어도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이 한다...」

「자기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수습하는데 있어 구용(九容)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구용이란 무엇인가? 발은 무겁게 놀려야 한다. 손은 공손하게 내어야 한다. 눈은 단정히 한다. 입은 신중하게 가져야 한다. 소리는 조용하게 해야 한다. 머리는 곧게 가져야 한다. 기운은 엄숙하게 해야 한다. 서 있을 때에는 꼴뚜기 서서 턱기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얼굴빛은 항상 씩씩하게 가져야 한다」

고 하였고, 「사소절」 부의 동지에는

「...길을 걸을 때 신을 끄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라고 언급하였으며, 「사소절」 동규 동지에서는

「앉을 때는 반드시 기댄 앉고 오래 앉은 것을 건디여 내지 못하여 무릎을 흔들고 손을 뒤척이고 어른을 끼려 피하는 사람과, 경솔하고 교만하고 거칠고 들떠

서 항상 멀리 달아나려는 사람은 좋은 인재가 아니다」

라고 이르고 있다.

몸가짐예절에 대한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은 일상 생활 가운데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몸가짐을 바로 잡아 스스로나 어른께 예를 갖추에 있어 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눈은 치켜뜨거나 결눈질하지 말아야 하며,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손을 양수거지 함으로써 쓸데 없이 움직이지 말며, 어른 앞에서는 행동거지를 신중히 하여 뒷짐을 지거나 다리를 꼬아 앉지 않도록 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2. 생활예절교육의 실제와 필요성

전통사회에서의 생활예절교육은 앞서 언급된 규범서의 내용들을 일러주었던 스승이나 윗어른들 뿐 아니라 가정에서 조부모, 부모, 일가친척어른과 형제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손자는 할아버지로부터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예절교육을 받았으며, 아버지는 가족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전반적인 책임을 졌고, 할아버지는 가족구성원을 가르치며 도덕과 윤리 질서 등을 일깨워주었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규범을 토대로 하여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이 생활예절교육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문호개방이후 싹트기 시작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서구문화의 도입은 과학기술의 발전,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초래하여 사회에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왔고, 가정적 측면에서는 가구 형태, 가족들의 생활방식, 가족성원의 인간관계 및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이는 세대간의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에 따라 우리 고유의 생활양식과 전통적인 의식구조는 약화되고 새로운 생활양식과 가치의식이 나타나게 되자 가정규범도 혼란을 겪게 되고 생활예절교육도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는 부모세대의 문화적 배경과 자녀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사이의 격차라는 요인과 더불어 가정의 예의범절이나 도덕 등의 기준이 불명

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직업활동에 부모를 빼앗기다시피한 가정의 부친부재·모친부재 현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절제없는 교육, 학교의 지식 위주의 교육, 과열경쟁 그리고 매스컴의 잘못된 영향들이 올바른 생활예절교육을 등한시 여기게 만들었다(이길표, 1994). 그 예로 1994년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66.5%가 우리 사회에서 가정교육은 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학교 교육도 윤리의식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59.5%)고 하였다. 이에 자녀들을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윤리의식 교육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예절 등의 기본 생활 습관(27.6%), 타인의견존중·공공의식(24.3%), 인간존중(24.0%)등으로 나타났다(공보처, 1995).

즉 인간이 태어나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삶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대내적으로 修己하여 정성된 마음가짐인 誠을 지니고 대외적으로 治人하여 敬과 愛를 표현하는 몸가짐 즉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료와 사이 좋게 지내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면서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의 본질이며 목적이기에 민주시민의 필수 교양과 자질로서 생활예절의 필요성은 더욱이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스런 마음을 가지고도 그 표현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여 서로의 마음을 불쾌하게 할 뿐아니라 예를 갖추지 못하여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비행과 범죄가 유발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과 예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생활예절교육을 통해 충분히 익혀 실천에 옮김으로써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예절은 하루 아침에 익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사회의 규범을 현대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행위의 규칙, 기준 또는 양식으로서의 규범들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은 생활예절의 기초적인 실천의 장으로서, 학교와 사회는 가정과 연계성을 갖는 교육의 장으로서 생활예절교육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조선시대 규범서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식생활, 의생활, 언어, 몸가짐 예절의 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예비조사 후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수정, 보완하였으며 설문지는 어머니용과 학생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생활예절의식,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생활예절행동 그리고 생활예절교육방안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전공자들로 부터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에 따른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고등학교 9개 학군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학생이었으며, 1996년 7월 15일 부터 8월 25일까지 질문지 1200부를 배포하여 회수한 결과 부실기·재한 것을 제외하고 988부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표 1> 설문 문항의 신뢰도 α

| | 어머니 | 학 생 |
|-------------------|-----|-----|
| 생 활 예 절 의 식 | .90 | .82 |
| 생 활 예 절 교 육 필 요 성 | .89 | .84 |
| 생 활 예 절 행 동 | .93 | .80 |

수집된 자료는 SPSS Computer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분석 등을 적용하였다.

Ⅳ.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생활예절 수용정도

1) 생활예절 수용정도의 전반적 경향

생활예절 수용정도를 의식과 행동면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표 3>에서와 같이 5점만점에 생활예절 의식은 평균 3.53, 생활예절행동은 3.29로 나타나 의식이 행동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생활예절의식을 영역별로 보면 의생활예절의식이 가장 높았으며(M=3.83), 식생활(M=3.63), 몸가짐(M=3.44)순이고, 언어예절에 대한 의식이 가장 낮았다(M=3.25). 생활예절행동에 있어서는 의생활(M=3.69), 몸가짐(M=3.30), 식생활(M=3.26), 언어(M=2.89)순으로 점수차를 보였다.

이는 가정규범에 관한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의 가치의식을 비교한 이길표(1994)의 연구에서 의생활에 대한 가정규범 수용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써 우리 사회에는 의생활에 관한 가정규범 내지는 예절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다고 사료된다.

2) 어머니와 학생간의 생활예절 수용정도의 차이

어머니와 학생간의 생활예절 수용정도는 <표 4>에서와 같이 의식과 행동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어머니가 학생보다 생활예절의식과 행동의 수용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예절의식 하위영역별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도 모든 영역에서 어머니의 의식이 학생보다 높았는데 어머니와 학생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언어예절의식 영역이었고,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인 것은 의생활예절의식 영역이었다.

생활예절행동 하위영역별에 있어서도 어머니가 학생보다 높은 수용정도를 보였는데 어머니와 학생간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은 언어예절행동 영역이었고, 가장 작은 차이를 나타낸 것은 의생활예절행동 영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에 특히 언어예절에 관한 세대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초중고생 1,300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7)에서 청소년들이 은어나 속어 등의 거친 말, 저속한 말을 1주일에 2-6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독립변인 | 구 분 | N | % | 독립변인 | 구 분 | N | % | | | |
|----------------------|----------------------------------|------------------------|------------------------------|-------------------------------|-----------------------|-------------------|----------------------|---|-----|-------|
| 어머니의 연령 | 40세미만 | 91 | 18.4 | 주택형태 | 단독주택 | 222 | 44.9 | | | |
| | 41-45세 | 273 | 55.3 | | 집합주택 | 272 | 55.1 | | | |
| | 46세이상 | 130 | 26.3 | | | | | | | |
| 어머니의 종교 | 불교 | 146 | 29.5 | * 며느리 순위 | 만며느리 | 181 | 4 | | | |
| | 기독교 | 149 | 30.2 | | 둘째며느리 | 207 | 11 | | | |
| | 천주교 | 71 | 14.4 | | 막내며느리 | 81 | 4 | | | |
| | 기타종교 | 128 | 25.9 | | 외며느리 | 25 | 82 | | | |
| | · 없음 | | | | | | | | | |
| 어머니의 학력 |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 110 270 114 | 22.3 54.6 23.1 | 주부의 취업상황 | 하루 8시간이상 근무 | 270 | 54.6 | | | |
| | | | | | 하루 4-8시간 | 63 | 12.8 | | | |
| | | | | | 하루4시간 | 111 | 22.5 | | | |
| | | | | | 미만불규칙 | | | | | |
| | | | | | 다니지 않는다 자원봉사활동 | 50 | 10.1 | | | |
| 계 | | | | 494 | 100.0 | | | | | |
| 어머니의 (외)조부모님과 동거경험 | 있다 없다 | 177 317 | 35.8 64.2 | 남편· 자녀 외의 동거가족원 (복수응답) | 시아버지(아버지) | 18 | 3.6 | | | |
| | | | | | 시아머니(어머니) | 56 | 11.1 | | | |
| | | | | | 기타가족 없다 | 18 412 | 3.6 81.7 | | | |
| 계 | | 494 | 100.0 | 계 | 504 | 100.0 | | | | |
| 어머니의 (외)조부모님과 동거시 나이 | 10대 | 100 | 56.5 |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복수응답) |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 244 483 166 | 27.3 54.1 18.6 | | | |
| | 20대 | 14 | 7.9 | | | | | | | |
| | 30대 | 63 | 35.6 | | | | | | | |
| 어머니의 (외)조부모님과 동거기간 | 10년미만 | 59 | 33.3 | 계 | 계 | 893 | 100.0 | | | |
| | 10-20년 | 26 | 14.7 | | | | | | | |
| | 21년이상 | 92 | 52.0 | | | | | | | |
| 계 | | 177 | 100.0 | 계 | 893 | 100.0 | | | | |
| 학생의 성별 | 남학생 | 228 | 46.2 | 학생의 (외)조부모님과 동거경험 | 있다 | 199 | 40.3 | | | |
| | | | | | 없다 | 295 | 59.7 | | | |
| | | | | | 계 | 494 | 100.0 | | | |
| 학생의 종교 |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종교 · 없음 | 67 179 63 185 | 13.6 36.2 12.8 37.4 | 학생의 (외)조부모님과 동거기간 | 5세미만 | 136 | 68.3 | | | |
| | | | | | 5-10세 | 35 | 17.6 | | | |
| | | | | | 11세이상 | 28 | 14.1 | | | |
| 학생의 종교 | 5년미만 6-10년 11년이상 | 96 43 60 | 48.2 21.6 30.2 | 계 | 계 | 199 | 100.0 | | | |
| | | | | | | | | 계 | 494 | 100.0 |
| | | | | | | | | 계 | 199 | 100.0 |

*: missing data

〈표 3〉 생활예절 수용정도

| 내 용 | 영 역 | M | SD |
|--------|-------|------|-----|
| 생활예절의식 | 식 생활 | 3.63 | .61 |
| | 의 생활 | 3.83 | .67 |
| | 언 어 | 3.25 | .64 |
| | 몸 가 짐 | 3.44 | .66 |
| 전 체 | | 3.53 | .51 |
| 생활예절행동 | 식 생활 | 3.26 | .68 |
| | 의 생활 | 3.69 | .77 |
| | 언 어 | 2.89 | .65 |
| | 몸 가 짐 | 3.30 | .73 |
| 전 체 | | 3.29 | .58 |

어머니의 생활예절행동 중 식생활예절 영역에서는 주택형태와 학력이 $P<.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주부($M=3.65$)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M=3.47$)보다 식생활예절행동 점수가 높았고, 학력별로는 고졸이상의 집단과 중졸이하간에 차이가 있어 대졸집단에서의 식생활예절행동 수준이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언어예절행동은 학력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P<.01$) 고졸집단에서의 언어예절행동이 가장 높았고($M=3.30$) 중졸이하에서 가장 낮았다($M=3.06$).

어머니의 몸가짐예절행동은 (외)조부모님과 동거경험에 따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동거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몸가짐예절행동이 높게

〈표 4〉 생활예절 수용정도에 대한 어머니와 학생간의 차이

| 구 분 | | 어머니 | | 학 생 | | t값 |
|--------|-----|------|-----|------|-----|----------|
| | | M | SD | M | SD | |
| 생활예절의식 | 식생활 | 3.93 | .59 | 3.32 | .62 | 19.06*** |
| | 의생활 | 4.12 | .62 | 3.53 | .72 | 15.44*** |
| | 언 어 | 3.64 | .62 | 2.86 | .65 | 21.30*** |
| | 몸가짐 | 3.79 | .64 | 3.09 | .67 | 18.85*** |
| | 전 체 | 3.86 | .52 | 3.20 | .50 | 24.67*** |
| 생활예절행동 | 식생활 | 3.57 | .73 | 2.94 | .62 | 16.27*** |
| | 의생활 | 3.87 | .79 | 3.50 | .74 | 8.28 *** |
| | 언 어 | 3.24 | .70 | 2.54 | .60 | 17.91*** |
| | 몸가짐 | 3.59 | .78 | 3.02 | .67 | 13.81*** |
| | 전 체 | 3.57 | .66 | 3.00 | .49 | 17.34*** |

*** $P<.001$

결과와 일부 연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변인별 생활예절 수용정도

독립변인별 생활예절 수용에 유의미한 변수는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생활예절의식에서는 (외)조부모님과 동거나이별로 몸가짐예절 영역에 차이가 있어 (외)조부모님과 동거시기가 20대인 어머니의 몸가짐예절의식이 가장 높고($M=4.14$), 10대($M=3.89$), 30대($M=3.75$) 순이었으며($P<.05$), 20대 이전에 (외)조부모님과 동거한 집단과 30대에 (외)조부모님과 동거한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나타났다.

학생의 예절행동에서는 언어영역에서 (외)조부모님과 동거시 나이가 $P<.05$ 수준에서 유의성있게 나타났다. 5세미만에 (외)조부모와 동거한 집단과 5세 이후에 동거한 집단간에 차이가 있고 5세미만에 동거한 학생의 언어예절행동이 가장 높았고($M=2.62$), 11세이상 (외)조부모님과 동거한 집단의 언어예절행동이 가장 낮았다($M=2.31$).

〈표 5〉 독립변인별 생활예절 수용정도

| 종속 변인 | 생활예절의식 | | | 생활예절행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몸가짐 | | | 식생활 | | | | | | 언어 | | | | | | 몸가짐 | | | | | | | | | | | | | | | | |
| 독립 변인 | 어머니의 (외)조부모님과의 동거나이 | | | 어머니의 학력 | | | 주택형태 | | | 어머니의 학력 | | | 학생의 (외)조부모와의 동거나이 | | | 어머니의 (외)조부모와의 동거경험 | | | | | | | | | | | | | | | | |
| | 10대 | 20대 | 30대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이상 | 단독 주택 | 집합 주택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이상 | 5세 미만 | 5- 10세 | 11세 이상 | 있다 | 없다 | | | | | | | | | | | | | |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 | | | | | | | | | | |
| | | 3.89 | .57 | 4.14 | .51 | 3.75 | .58 | 3.36 | .80 | 3.62 | .71 | 3.68 | .67 | 3.47 | .77 | 3.65 | .69 | 3.06 | .71 | 3.30 | .67 | 3.26 | .72 | 2.62 | .67 | 2.40 | .46 | 2.31 | .51 | 3.69 | .75 | 3.53 |
| F(t)값 | 3.09* | | | 6.52** | | | -2.74** | | | 4.77** | | | 3.98* | | | 2.17* | | | | | | | | | | | | | | | | |
| D | A | A | B | B | A | A | | | B | A | A | A | B | B | | | | | | | | | | | | | | | | | | |

D: Duncan의 추후검증 * P<.05 ** P<.01

3.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

1) 생활예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어머니와 학생간의 차이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예절교육에 대한 어머니와 학생간의 차이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생활예절교육 필요성에 대한 어머니와 학생간의 차이

| 구분 | 어머니 | | 학생 | | t값 |
|-----------|------|-----|------|-----|---------|
| | M | SD | M | SD | |
| 생활예절교육필요성 | 4.38 | .51 | 4.15 | .64 | 7.62*** |

*** P<.001

5점만점에 어머니 4.38 학생 4.15로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어머니가 학생보다 생활예절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전체 두 집단간에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변동과 가치의식의 혼돈속에서도 예절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변인별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

변인별 생활예절교육 필요성은 어머니의 경우 학력과 주택형태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7〉.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예

절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졸 이상집단과 중졸이하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주택형태에 있어서는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주부(M=3.62)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M=3.50)보다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의 경우 종교와 (외)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P<.05 수준에서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천주교를 믿는 학생(M=4.26)이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나타냈고, (외)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M=4.09)이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4. 생활예절수용정도와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

1) 생활예절수용정도와 생활예절교육 필요성간의 관계

〈표 8〉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생활예절의식과 생활예절행동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r=.5398, P<.01), 어머니의 생활예절의식과 생활예절필요성간에도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r=.4983, P<.01).

학생의 경우는 생활예절의식과 생활예절행동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고(r=.6040, P<.01), 생활예절의식과 생활예절필요성간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r=.4720, P<.01).

어머니와 학생간에는 어머니의 생활예절 의식과

〈표 7〉 변인별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

| 변 인 | 어머니 | | | | 변 인 | 학 생 | | | |
|------|------|--------|-----|-----------------|-----|-------|-------|-----|---|
| | M | | SD | D | | M | | SD | D |
| 학 력 | 중졸이하 | 3.42 | .75 | B | 종 교 | 불 교 | 4.20 | .60 | B |
| | 고 졸 | 3.61 | .63 | A | | 기 독 교 | 4.21 | .60 | B |
| | 대졸이상 | 3.62 | .60 | A | | 천 주 교 | 4.26 | .57 | A |
| | | | | 기타·무 | | 4.03 | .70 | C | |
| F값 | | 3.83* | | D | F값 | | 3.58* | | D |
| 주택형태 | 단독주택 | 3.50 | .70 | (외)조부모와 동거경험 | 있 다 | 4.23 | .62 | | |
| | 집합주택 | 3.62 | .61 | | 없 다 | 4.09 | .66 | | |
| t값 | | -1.97* | | t값 | | 2.37* | | | |

D: Duncan의 추후검증 * P < .05

〈표 8〉 생활예절수용정도와 생활예절교육필요성간의 상관관계

| 구 분 | | 어 머 니 | | | 학 생 | | |
|-------|-----|---------|---------|---------|---------|---------|-----|
| | | 의 식 | 필요성 | 행 동 | 의 식 | 필요성 | 행 동 |
| 어 머 니 | 의 식 | | | | | | |
| | 필요성 | .4983** | | | | | |
| 학 생 | 행 동 | .5398** | .3851** | | | | |
| | 의 식 | .3032** | .1053* | .2079** | | | |
| | 필요성 | .2111** | .2684** | .1988** | .4720** | | |
| | 행 동 | .1557** | .1193* | .2097** | .6040** | .3896** | |

* P < .05 ** P < .01

학생의 생활예절 의식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r=.3032$, $P<.01$)를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생활예절행동과 학생의 생활예절행동간에도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2097$, $P<.01$).

5. 생활예절교육방안

1) 생활예절교육방안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조사대상자의 생활예절교육방안에 관한 전반적 의견은 〈표 9〉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예절교육의 시기에 대해 어머니는 연령에 관계없이 보고 배운 것(42.6%)이 가장 도움이 되었고, 그 외는 초등학교시기에 배운 것에 높은 응답을 하였다. 학생은 초등학교시기 30.3%, 초등학교이전시기와 연령에 관계없이 보고 배운 것(각각 25.9%)에 응답

을 하였다.

예절교육자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학생 모두 부모에게서 주로 배웠으며(각각 76.3%, 81.2%) 그 다음은 조부모를 통해서였다.

예절교육이 잘 행해지지 못하는 까닭으로 어머니는 T.V 매스컴의 영향(26.1%)과 입시위주의 교육(19.2%), 학생의 경우는 입시위주 교육(35.4%)과 부모의 지나친 과잉보호(32.1%)를 지적하였다.

생활예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경우는 개인예절(46.3%), 가정예절(32.5%), 사회예절(18.0%), 학교예절(2.0%)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경우 개인예절(56.0%), 사회예절(23.8%), 가정예절(16.8%), 학교예절(2.6%)로 나타나 어머니와 학생 모두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관련된 개인예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 생활예절교육방안

| 내 용 | 구 분 | 어머니 | | 학 생 | |
|------------------------------------|---------------------------------------|-----|-------|-------|-------|
| | | N | % | N | % |
| 언제 배운 예절 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는가? | 초등학교 이전에 배운 것 | 96 | 19.4 | 128 | 25.9 |
| | 초등학교 시기에 배운 것 | 117 | 23.6 | 150 | 30.3 |
| | 중학교 시기에 배운 것 | 41 | 8.3 | 51 | 10.3 |
| | 고등학교 시기에 배운 것 | 16 | 3.2 | 35 | 7.1 |
| | 연령에 관계없이 배운 것 | 211 | 42.6 | 128 | 25.9 |
| | 계 | | 481 | 100.0 | 492 |
| 예절교육을 주로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 조부모 | 98 | 20.2 | 44 | 8.9 |
| | 부모 | 371 | 76.3 | 400 | 81.2 |
| | 친척 | 0 | 0.0 | 4 | 0.8 |
| | 선생님 | 11 | 2.3 | 27 | 5.5 |
| | 책 | 5 | 1.0 | 14 | 2.8 |
| | TV, 라디오, 신문 | 1 | 0.2 | 4 | 0.8 |
| | 사회교육기관 | 0 | 0.0 | 0 | 0.0 |
| 계 | | 486 | 100.0 | 493 | 100.0 |
| 예절교육이 잘 행해지지 못하는 까닭? | 부모의 지나친 과잉보호 | 28 | 5.7 | 59 | 32.1 |
| | 임시위주의 교육 | 95 | 19.2 | 175 | 35.4 |
| | 모르기 때문에 | 24 | 4.8 | 39 | 7.9 |
| | 어른이 안계시므로 | 38 | 7.7 | 27 | 5.5 |
| | T.V 매스컴의 영향 | 129 | 26.1 | 32 | 6.5 |
| | 부모가 직장생활하므로 | 58 | 11.7 | 22 | 4.4 |
| | 부모의 무관심 거부감 | 62 | 12.5 | 6 | 1.2 |
| 계 | | 486 | 100.0 | 394 | 100.0 |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활예절은? | 개인예절 | 229 | 46.3 | 227 | 56.0 |
| | 가정예절 | 161 | 32.5 | 83 | 16.8 |
| | 학교예절 | 10 | 2.0 | 13 | 2.6 |
| | 사회예절 | 89 | 18.0 | 118 | 23.8 |
| 계 | | 489 | 100.0 | 441 | 100.0 |
|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활예절은? | 의생활예절 | 60 | 12.1 | 34 | 6.9 |
| | 식생활예절 | 49 | 9.9 | 45 | 9.1 |
| | 언어예절 | 200 | 40.5 | 276 | 55.8 |
| | 몸가짐예절 | 173 | 35.0 | 132 | 26.7 |
| 계 | | 482 | 100.0 | 487 | 100.0 |
| 가정에서의 예절교육방안은? | 부모가 모범을 보인다 | 293 | 59.2 | 224 | 45.3 |
| |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 135 | 27.3 | 190 | 38.4 |
| | 잘못했을때마다 지도 | 53 | 10.7 | 59 | 11.9 |
| | 따로 불러 이른다 | 3 | 0.6 | 5 | 1.0 |
| | 항상 엄격히 지도 | 3 | 0.6 | 6 | 1.2 |
| 계 | | 487 | 100.0 | 484 | 100.0 |
| 학교에서의 예절교육방안은? | 일상생활지도교육강화 | 320 | 64.6 | 143 | 28.9 |
| | 생활관교육 | 69 | 13.9 | 135 | 27.3 |
| | 교육과정에 포함 | 61 | 12.3 | 79 | 16.0 |
| |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 20 | 4.0 | 51 | 10.3 |
| | 어머니 예절교육 | 14 | 2.8 | 56 | 11.3 |
| 계 | | 484 | 100.0 | 464 | 100.0 |
| 사회에서의 예절교육방안은? | T.V나 매스컴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센터나 사회교육기관에서 | 319 | 64.4 | 240 | 48.5 |
| | 기업체 연수 프로그램 | 85 | 17.2 | 117 | 23.6 |
| | 공공기관에서 예절교육 | 17 | 3.4 | 41 | 8.3 |
| | 평생교육기관에서 예절강좌 | 22 | 4.4 | 33 | 6.7 |
| | 평생교육기관에서 예절강좌 | 38 | 7.7 | 43 | 8.7 |
| | 계 | | 481 | 100.0 | 474 |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절은 어머니의 경우 언어예절, 몸가짐예절, 의생활예절, 식생활예절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은 언어예절, 몸가짐예절, 식생활예절, 의생활예절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예절교육방안으로 어머니·학생 모두 '부모가 모범을 보인다'에 각각 59.2%, 45.3%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가르친다'가 27.3%, 38.4%로 나타났다. 이는 장경선(1992)의 연구에서 예절교육은 주로 어머니로부터 지도 받는다(36.4%)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학교에서의 예절교육방안으로 어머니는 일상생활지도교육강화 64.6%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학생의 경우는 일상생활지도교육강화 28.9%, 생활관교육 2.37%, 교육과정에 포함 16%, 어머니 예절교육 11.3%,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10.3%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회에서의 예절교육방안으로 어머니·학생 모두 T.V나 매스컴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각각 64.4%, 4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문화센터나 여성단체, YWCA 등의 사회교육기관을 통해서로 나타났다(각각 17.2%, 23.6%).

V. 결론

우리 민족은 생활예절을 근간으로 하는 수준 높은 규범문화를 형성해 왔으나, 정치, 사회,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통적 생활문화와 현대의 생활구조와의 부조화로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규범류에 나타난 생활예절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인 어머니와 청소년인 고등학생간의 생활예절의식과 행동을 파악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생활예절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활예절수용정도를 의식과 행동면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5점 만점에 생활예절의식은 3.53, 생활예절행동은 3.29로 나타나 의식이 행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와 학생간의 생활예절수용정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의식과 행동이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언어예절의식과 행동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2.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은 5점만점에 어머니 4.38, 학생 4.15로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어머니가 학생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3. 생활예절수용정도와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은 각 영역별로 높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생활예절교육방안 중 예절교육의 시기는 어머니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시기를 언급하였다. 예절교육자는 어머니와 학생 모두 부모를 높게 응답하였으며 특히 가정에서는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예절을 교육하는 방안을 지적하였다.

한편 학교에서의 예절교육방안으로는 일상생활지도교육 강화와 생활관 교육 실시였으며, 사회에서는 TV나 매스컴의 프로그램과 문화센터, 사회교육기관에서 예절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바람직한 생활예절교육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조선시대 규범서에 나타난 생활예절의 내용은 교훈과 교육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시대를 초월하여 기성세대와 청소년의 실존적 생활예절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1) 식생활예절은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 어른이 먼저 드신 다음 먹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는 자세는 어려서부터의 가르침을 통해 습관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사치함없이 단정하게 그리고 때와 장소, 신분에 맞게 옷을 갖추어 입는 의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와 청소년간 예절의식 및 행동에서 가장 작은 차이를 나타냈으나 오늘날 매스컴의 잘못된 영향으로 절제없는 모방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생활예절을 알고 이를 지키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3) 기성세대와 청소년간 가장 큰 세대차이를 보여준 영역인 언어예절은 보다 적절한 기준적인 교육지

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언어생활에 있어 敬과 愛의 교육지침을 강화함으로써 거친말과 저속한 말을 삼가하도록 한다면 가족간, 동료간, 나아가 사회에서 올바른 언어예절을 실천하여 화목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이루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4)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몸가짐을 바로잡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격몽요결에서 이르는 九容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수습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그 실천의 예로 물건을 주거나 받을 때 손가락 끝을 모아 가지런히 하고, 어른 앞에서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아 앉지 않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잊기 쉬운 예절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항상 요한다고 하겠다.

둘째,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은 기성세대와 청소년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고, 특히 부모가 예절교육자로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물론 부모를 위한 생활예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급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특히 기성세대와 청소년 모두 자신에게 필요한 예절교육의 내용으로 언어예절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예절교육의 시기는 기성세대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경우는 초등학교 시기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결국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의 차원으로까지 연결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와 사회에서는 가정과 상호 보완하여 예절교육이 생활교육의 견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한 기본예절지도자료 제공은 학부모의 관심과 지도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연계성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는 대중매체의 잘못된 영향으로 예절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보완책이 간구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센터나 사회교육기관의 활성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공보처(1995), 1994년도 정부여론조사자료집.
- 2) 김윤환(1992), “기본생활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습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소혜왕후 한씨, 「내훈」.
- 4) 손인수(1982), 조선시대 여성교육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5) 신정숙(1984), 한국전통사회의 여성생활문화, 서울: 대광문화사.
- 6) 유안진(1989),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대출판부.
- 7) 유중립, 「증보산림경제」.
- 8) 이길표(1994), 가정규범에 관하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의 가치의식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2권 3호.
- 9) 이길표(1994), 조선조 규범류에 나타난 가정규범교육의 내용과 특징, 대한가정학회지 제 32권 4호.
- 10) 이길표, 주영애(1995),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서울: 신광출판사.
- 11) 이덕무, 「사소절」.
- 12) 이덕수, 「여사서」.
- 13) 이영미(1989), 조선조 여성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14) 이영미(1995), 한국전통사회의 자녀교육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15) 이윤곡, 「격몽요결」.
- 16) 이황, 「규동요람」.
- 17) 장경선(1992), 가정과 교육을 통한 예절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정신문화연구원(1992), 한국인의 윤리의식연구.
- 19) 주희, 「소학」.